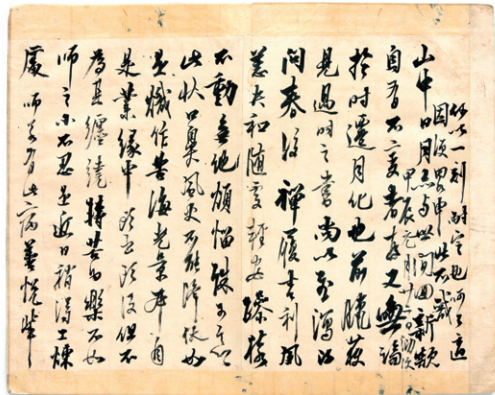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고통을 돌려 즐거움 삼으니...”



〈벽해타운첩〉에 수록된 추사의 편지.

해가 바뀌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주에 온 인편을 통해 추사는 초의가 보낸 묵은 편지를 받았다. 초의가 어떤 낭보를 전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마음으로 통하는 벗에게 온 편지는 철이 지난 묵은 편지일지라도 추사의 답답한 마음을 “오허려 위로하고 시원하게” 만들었던 듯하다. 〈완당전집〉 ‘여초의’ 21신에 수록된 이 편지는 실제 어느 시기에 쓴 것인지 알려지지 않다가 〈벽해타운첩〉이 발굴된 후, 그 시기가 소상하게 밝혀진 셈이다. 따라서 추사는 1843년 12월 쯤 초의의 편지를 받고, 다음 해인 1844년 1월 24일 초의에게 보내는 이 편지를 쓴 것.

마침 물으로 가는 인편에게 이 편지를 보냈는데, 그의 정감어린 답신의 편지는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

입과 코의 풍기와 화기로 고생 “고해는 업에서”... 인과 초월한 듯 두 벗의 자유로운 거랑 ‘감동’

산중의 세월도 세속처럼 새해로 바뀌는가. 자신에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하여도 세월이 변하는 것은 말할 것이 없습니다. 지난 선달에 보낸 묵은 편지를 받고, 오히려 위로되고 시원해졌습니다. 불철 이후 스님의 수행도 길하고 이로우며 묵은 병도 쾌차해져서 가는 곳마다 가볍고 편안하지 않으면 다른 번뇌가 없는 것이지만 특별히 생각이 납니다.

저는 입과 코의 풍기와 화기가 수그러들지 않고 이처럼 성하게 일어나니 고해(苦海)의 광경은 본래 자신의 업연 속에서 나오고 사라지는 것이지만 그것에 얽매지 않고 고통을 돌려 즐거움으로 삼으니 그대처럼 작은 것을 참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근래에 조금씩 수련하여 얻은 것입니다. 그대가 만약 이 병이 있다면 그대들이

(善悅輩) 어떻게 짧은 시간에 안정시키겠는가. 하하, 마침 인편이 있어 대략 말씀드립니다. 이만 줄입니다.

1844년 1월 24일 늑편(山中日月亦與世間回新歟 自有不變者存 又無論於時遷月化也 前臘獲見過時之書 尚以慰瀉 即問春後禪履吉利 夙恙夫和 隨處輕安 蹊猿不動無他煩惱 殊可念念 此狀口鼻風火不能降伏 如是熾作 苦海光景 本自是業緣中 頭出頭沒 但不爲其纏繞 轉苦爲樂 不如師之小不忍 是近日稍得工煉處 師若有此病 善悅輩何以一刻耐定也 呵呵 適因略申 姑不戢 甲申 元月 二四日 游便)

당시 정월 24일이면 막 경침이 지났을 터. 봄기운이 완연했을 것이라 짐작된다. 그가 “묵은 병도 쾌차해져서”라고 한 것은 초의가 지난 해(1843) 제주에서 말을 타다가 다친 것을 염려한 것이다. 따라서 “가는 곳마다 가볍고 편안하지”를 묻은 것이다. 이런 저런 공연한 걱정이야 “조급한 원숭이일지라도 움직이지 않으면 다른 번뇌가 없는 것”이지만 특별히 벗의 안부가 마음 쓰인 듯하다. 추사 또한 입과 코가 헤어지는 고통을 겪고 있었던 처지였지만 세심한 마음씀씀이가 돋보인다. 이런 고통 속에서도 조금씩 수련으로 단련된 추사의 심신은 “고해(苦海)의 광경은 본래 자신의 업연 속에서 나오고 사라지는 것이지만 그것에 얽매지 않았다”고 하니 그는 해탈에 든 것인가. 더구나 업의 인연을 끊어 “고통을 돌려 즐거움으로 삼는다”고 한 추사의 경지는 분명 인과를 초월한 것이 분명하다. 당시 초의 주변사가 난마처럼 얽힌 실제의 사연이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추사 자신은 “그대처럼 작은 것을 참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 것. 분명 이 말은 희언(戲言)이었겠지만 서로의 격려가 이처럼 빛난다. 실로 초의의 수행력으로 작은 것을 참지 못할 경계가 무엇이었는가. 호학(好學)을 유영(遊泳)한 세속의 유자(儒者)도 이미 지천명(知天命: 50세)을 지나 이순(耳順: 60세)의 조임에 다가섰다면 와유(臥遊)의 자유로움이나 유어(遊於藝)를 넘나들 터. 두 벗의 거랑(度量)이야, 우리가 짐작하기는 어려운 일이라 하겠다.



박동춘(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

사회 위한 승가변화 ‘부처불교’ 평생 숙제

현고 스님 (광주 원각사 회주)

22살의 전라도 청년은 불교를 전혀 몰랐다. 수확여행 외에는 사람에 간 적이 없었고, 학창시절 교과서에 수록된 불교 철학과 역사가 알고 있는 불교의 전부였다. 당시의 청년에게는 불교는 변방의 어떤 것이었다.

대학 2학년을 휴학한 청년은 입신양명의 꿈을 안고 승보사찰 송광사 금강어련에서 공부를 시작했다. 어느 날 청년은 식후 운동 삼아 산내 암자인 감로암을 찾았고, 그곳에서 구산 스님을 만났다.

청년은 돌연 호기심이 들었고 이내 구산 스님에게 당돌한 질문을 던졌다. “방대한 우주 가운데 사람을 그린다던 어떻게 그리겠습니까?”

스님은 대답이 없었다. 묵묵히 함께 걷기만 했다. 그러던 중 터진 일갈. “이놈아! 허공 안에 네 우주가 있다!”

20년 동안 자신을 지탱해 왔던 세계관이 부서지는 충격이었다. 모든 것이 부질없었다. 이를 만에 짐을 싸 송광사로 갔다. 그리고 구산 스님을 은사로 무명초를 자르고 먹물웃을 입었다. 입신양명을 인생의 최대 목표 삼고 있던 청년은 한눈 팔지 않고 꼬박 43년을 출가의 길을 걸었다.

나타났다. 1976년부터 송광사 목욕탕, 종각 불사를 도왔고, 1983년부터 1994년까지 송광사 중창불사 도감을 맡아 송광사 대웅전 불사를 지휘하며 여법하게 복원했다. 그 후로 스님을 손을 거친 사찰 전각만 180채에 이른다. 낙산사 복원 불사에도 참여해 화마로 사그라진 낙산사를 현재의 모습을 갖출 수 있게 했다.

이렇게 많은 불사에 참여한 이유에 대해 스님의 답변은 분명했다. “한국불교의 문화적 정체성을 바로 잡기 위해서.” 우리의 것이 훨씬 더 인간적이고 품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싶었다는 것이다.

“중창불사를 하면 원형을 훼손하며 왜곡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경제적, 기술적 이유가 있겠지만 불사는 처음 지었던 감성과 미적 감각이 살아있어야 조화가 되고 다양성도 생깁니다. 옛 시절 사찰 건축을 담당했던 장인들은 죽을 먹으며 무던 연장을 가지고 불사를 해왔습니다. 그곳에는 그분들의 원력, 순수와 정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많은 것을 고려한 연구가 이뤄져야 하며 구체적으로 구현돼야 합니다.”

그렇다면 스님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 불사는

출가, 내 삶의 터닝 포인트

초여름의 문턱에서 만난 현고 스님(광주 원각사 회주, 사회복지법인 바라밀 이사장)은 구산 스님과 만남을 이렇게 술회하며 머머리를 풀었다. 자신의 출가 이야기를 가장 먼저 꺼낸 것은 그 만큼 출가가 삶의 극적인 터닝 포인트였기 때문이다.

“구산 스님의 일갈은 제가 보고 있는 세상의 틀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출세지상주의, 1등주의에 빠진 내게 스님께서 ‘쓸데없는 짓거리’라고 설하신 것입니다. ‘주체적인 삶이 무엇인가’고 스님께서 내 안에 화두를 던지셨습니다.”

하지만, 스님에게 출가 이후 모든 과정들은 자신의 가치관과 체제와의 충돌이었다. 당시 20대 햇둥이였던 현고 스님에게 절집은 이해할 수 없는 것 투성이었다.

“행자할 당시만 해도 사중 경제가 좋지 않아 기와 수리를 제대로 할 수 없었죠. 그러니까 비가 오면 지붕이 매번 새는 거군요. 비가 새면 양동이를 대서 받았는데 그렇게 하면 어쩔 수 없이 물이 튀어 사방에 곰팡이가 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부처님 가르침은 근본을 다스리고 하겠는데 정작 가르침과는 다른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린다면 기와를 수리하던가 교체해 해야 하는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양동이를 대는 것은 근본적 치유책이 되지 않습니다. 스님들을 보니까 이것을 당연시 여기고 있더군요.”

이런 가치충돌에서 오는 문제의식은 스님의 출가 생활에서 가장 큰 고민이었다. 출가 당시에도 기존에 지닌 시각과 가치관에 역전이 일어나 발심했듯, 스님이 사중 생활을 하면서 접하는 문제의식은 ‘불교 개혁’이라는 화두로 바뀌었다.

‘불사의 달인’ 이 되기까지

‘불교 개혁’을 화두로 현고 스님이 두각을 보인 것은 사찰 불사다. 27살 당시부터 직접 포크레인을 운전해 골재를 채취하고 송광사 밑에 여관과 상가를 만들었다. 1976년부터는 직접 자가용을 운전하며 사중 일들을 처리했다. 당시 승공으로서의 하기 힘든 일이었다.

하지만 스님의 생각은 달랐다. 시주물을 아끼고 겸손하게 사는 게 스님의 역할이 아니라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게 삼보정재를 바로 쓰는 것이라고 봤다. 버스, 택시, 자가용 별로 차비, 시간 등 비교표를 만들어서 어른 스님들께 보여주는 수도고 마다하지 않았다. 어른 스님들 역시 “정서상 맞지 않지만, 이치에는 맞다”고 압묵적 허락을 내렸다. 스님의 추진력은 송광사 사중 불사에서도 그대로

‘낙산사·송광사 등 불사 통해

내 손으로 지은 전각만 180채”

한국 전통 아름다움 지키 ‘발원’

전남문화재단 설립해 콘텐츠 발굴

20대 구산 스님 만나

출가 인연... 가치관 변화

템플스테이 탄생 이끌며 문화불사

현재 전남·광주지역 복지 선도

대중참여 유도할 개혁사업 필요

어디였을까? 스님은 자신이 도감을 맡았던 ‘낙산사 복원 불사’라고 밝혔다. 사실 낙산사 복원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철저한 고증을 바탕으로 해 이뤄졌다. 기초발굴조사에서 나타난 유구를 중심으로 김홍도의 ‘낙산사도’와 비교해 건물배치를 배치했다. 건물의 세부적 사항은 영동지방 국보 건축물들의 초를 모본으로 해서 복원했다. 모두 역사적 사료에 근거해 이뤄진 것들이다.

“한국 사찰은 소박하고 지형지세와 조화돼야 합니다. 산세가 유연하면 그와 어울리게 여성적 느낌을 살려야 하죠. 낙산사 주변 설악산은 남성적이지만 절이 위치해 있는 산과 관음도량이라는 이미지를 고려해, 전각들이 작고 부드럽고 여성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결국 불사도 연기법입니다.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무 한 그루, 산이 중요한 것입니다. 서로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불교 개혁 사례 템플스테이와 복지

불사를 통해 이루어 한 ‘불교 개혁’은 문화 분야에서도 이뤄졌다. 바로 템플스테이이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사찰에서의 숙식을 통해 한국 전통불교문화 체험을 이끌려 시작한 템플스테이를 전문 부서 설립 등의 외형을 키운 것이 현고 스님이다. 처음에는 반발도 많았다. 적지 않은 스님들이 “스님들을 밤 자갈 시킬 일 있느냐”며 반대했을 때 문이다. 타당한 지적이었다. 콘텐츠가 없다면 기존 수련회와 다를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님의 생각은 확고했다. 대한민국에서 전통문화의 원천소스는

범어가 담긴 도자기 에코컵

한잔의 여유와 함께 마음을 음미하다...

한해동안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종이컵은 무려 120억개 이상!

이만큼의 종이컵을 만들려면 무려 1000억원이 들어가고 7만 783톤의 천연펄프를 수입해야 하며

나무 1500만그루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1년 소비를 위한 종이컵을 생산할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은 13만 2천톤 4725만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흡수할 수 있는 양이고요.

종이컵 1개를 만들때 사용되는 물은 200리터 120억개면.. 여기서 끝은 아니죠?

재활용비율 13.7% 처리비용만으로도 연간 60억원이 들어가고

종이컵 1개가 썩는 데는 무려 2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지금부터라도 에코컵으로 환경을 사랑해주세요.~^^



보관도 편안하고 공간도 적게! 차곡차곡 쌓아 보관하세요. 일반 머그컵보다 작고 종이컵보다는 큰 크기! 알맞은 크기로 커피 타 마시기에도 안성맞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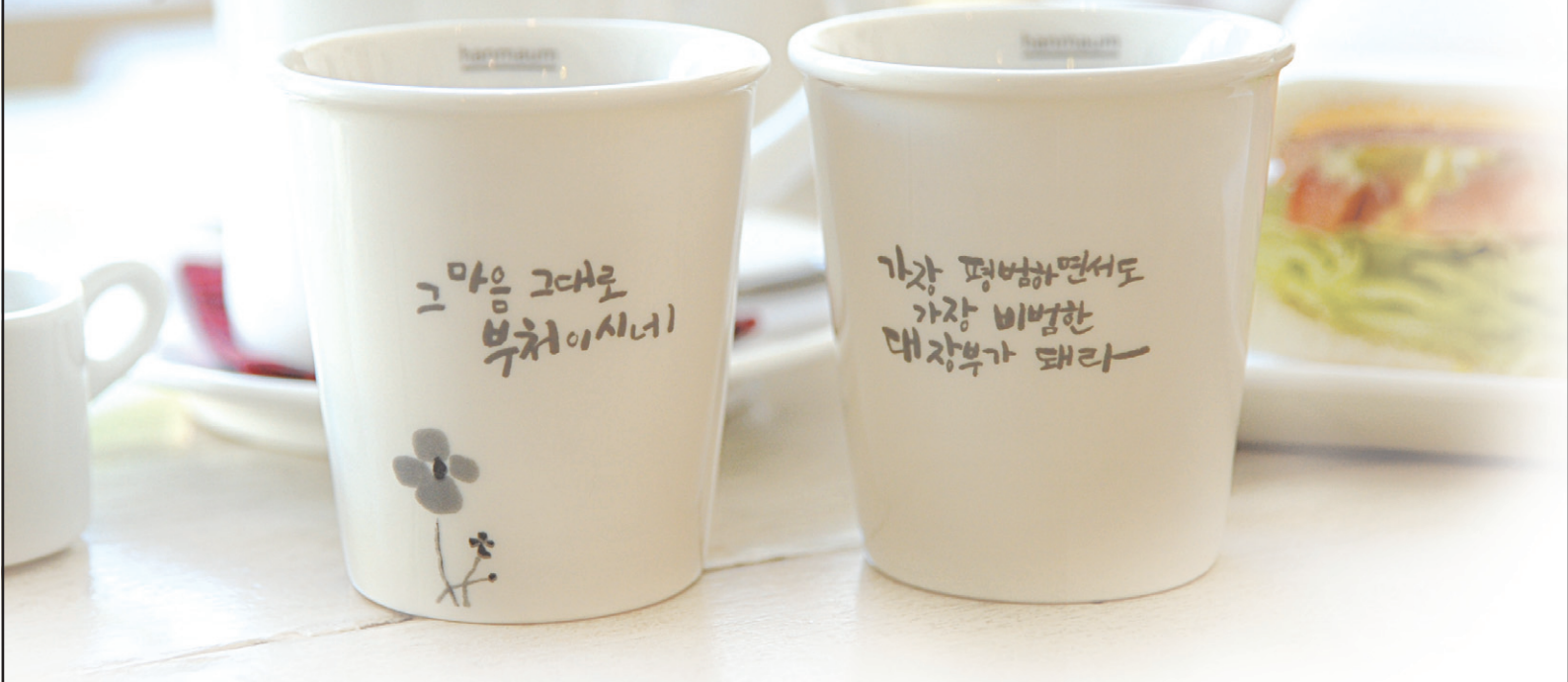
종류	컵범어내용	판매가
Aset	마음+대장부	9,000원
Bset	마음+마음	9,000원
Cset	대장부+대장부	9,000원

- 컵 날개 5,000원 (택배비 별도)
- 2세트 9,000원 (택배비 별도)
- 3세트 27,000원 (택배비 무료 !!)

▷ 범어내용 <

1. 마음 : 그 마음 그대로 부처이시네
2. 대장부 :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비범한 대장부가 돼라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올해 5월 6일 열린 송광사버마하우스 환우 위문공연에서 현고 스님이 인사말을 하고있다.



현고 스님은 ... 1950년 태어난 현고 스님은 1971년 10월 15일 송광사에서 구산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했으며, 1975년 4월 15일 송광사에서 구산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1971년 10월 송광사에서 수선안거 이래 수도암, 해인사 등에서 안거를 하며 마음자리를 닦았다. 1983년부터 1994년까지 송광사 중창불사 도감을 맡았으며, 1994년부터 1998년까지 송광사 주지를 지냈다. 조계종 총무부장, 기획실장, 정책특보,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등 종단 주요직도 두루 역임했으며,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부회장, 경실련 전남협의회 상임대표, 주암호보종합의회 대표이사 등 다양한 사회 실천 활동도 펼쳤다. 현재 광주 원각사 회주와 현장과 이론이 만나는 연구소 생태지평 공동대표, 사회복지법인 바라밀 이사장 등의 소임을 맡고 있다.

누가 뭐래도 '불교'였고, 이를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은 불교 문화를 사람들에게 체험하게 하는 것이었다. 스님역시 이에대한 중요성을 알고 2000년 전남문화재단 연구소를 설립했으며, 운주사를 이용한 스토리텔링콘텐츠를 개발하기도했다.

"문화는 창조적 상상의 원천입니다. 우리의 문화가 세계에 퍼질 수 있는 보편성이 있어야 하고, 정체성은 가장 한국적인 것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모두를 만족시키는 게 템플스테이죠. 불교 개혁 사례 중 가장 성공한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시월 10년을 지난 템플스테이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웃종교인들이 더욱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문화 체험 콘텐츠를 개발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현재 템플스테이는 아쉬운 지점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찰 불사와 문화를 거친 현고 스님의 불교 개혁은 최근에는 지역 복지에서 구현되고 있다. 이미 1993년 송광사 주지를 살면서 시작한 복지사업이지만 2005년 사회복지법인 바라밀을 출범시키면서 본격적인 계도에 올랐다. 현재 광주 바라밀실버하우스, 순천 송광실버하우스, 화순 나드리노인복지관 등 20개 기관을 법인을 통해 운영 중이다. 종사자 수도 240여 명에 달한다. 개신교세가 압도적인 호남에서 보기 드문 성과다.

"전 불교가 어떤 것이냐고 묻는다면 '자비'라고 대답할 겁니다. 스님과 불자들은 자기 자신에게 계속 되물어야 합니다. 내가 자비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에게 불교도 좋은 일을 하고 스님들이 어려운 사람들의 눈물, 콧물을 닦아주고 있다는 것을 보려고 싶기도 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자비의 구체적 실천은 복지입니다. 복지를 한다는 것은 자비가 있다는 말이고, 자비가 있다면 불교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것 또한 '불교 개혁'입니다."

조사불교 아닌 부처불교를 위해
스님은 인터뷰 내내 자신의 궤적 전부를 '불교 개혁'에 포함시켰다. 태생이 계로는 자신은 불교를 만나



총무원 총무부장 재직 시절 현고 스님. 사진왼쪽은 2005년 태풍 나비의 피해를 입은 수해민들에게 후원물품을 전달하고 있는 모습. 사진 오른쪽은 조계종 스리랑카 복지센터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전법일기

자비의 김장나누기 ①

김장은 우리절의 연례행사 가운데 가장 큰 행사다. 참가 인원도 본다면 부처님 오신날이나 봉축음악회가 있지만 투입되는 인력이나 일하는 기간으로 본다면 단연 첫 손가락에 꼽힌다. 그러니 김장에 대하여 할 말이 좀 많겠는가.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글을 쓴다.

내가 보성선원에 부임해 온 지 반년 좀 지난 2008년 가을, 4촌 사형인 현명 스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는 제주시에 삼광사라는 절을 창건하여 봉사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스님이다.

"절 운영은 어떻소?"
"뭘, 별일 없이 세 때 기도하면서 그냥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절에서는 5년 전부터 김장 나누기를 하고 있는데 스님도 한 번 해보지, 그래."
김장 나누기라면 김장을 해서 불우이웃들에게 나누는 뜻이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현명 스님의 말이 이어졌다.

"우리 삼광사에서는 300통을 만들어서 여기저기에 나눠주는데 그거 하면 좋은 점이 많아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니깐 좋고, 우리절이 지역 사회에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으니까 좋고, 신도들은 자긍심을 느낄 수 있으니까 좋고, 무엇보다 비용이 별로 들지 않아요." 비용이 별로 들지 않는다는 말에 눈이 번쩍 뜨였다. 당시는 우리절이 적자행진을 계속하고 있을 때였으니까.

"그 많은 김장을 담그는데 비용이 별로 들지 않는다고요?"
"스님도 알다시피 우리 절집 불사라는 게 다 절

도반 스님이 권유한 김장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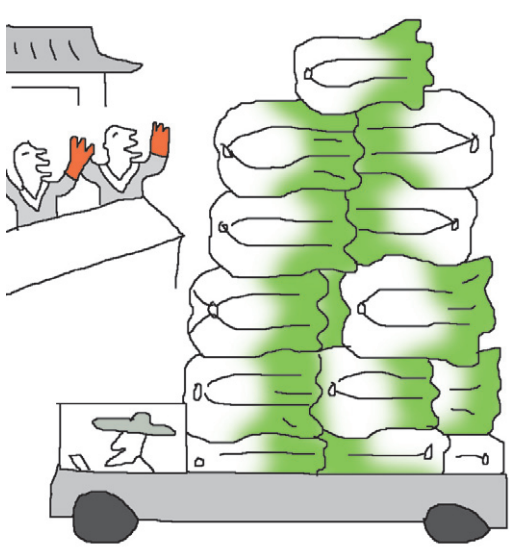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2008년 권유로 김장행사 열여 크고 작은 인연 모여 3100포기 김장

로 된다고 하잖아요. 일단 시작만 하면 저절로 돼요. 내 말 믿고 한 번 시작해 봐. 대구는 신심으로 뭉쳐가라하면 서러워하는 곳 아닌가."

"배추랑, 무랑, 고추랑... 그것 말고도 들어가는 것도 많을 텐데 그걸 어떻게 다 총담하시기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보성선원 신도들은 스님이 좋은 일을 하자고 하는데 닦집지도 가만히 있을까? 여건 자체적으로 돌아가요. 김장에 들어가는 거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와, 거저말 아니니까 내 말 믿고 시작해 봐요."

현명 스님은 확신에 차 있었다. 나는 반신반의하면서도 신도 대표를 만나 김장 나누기의 취지를 설명했다. 신도들은 일이 많을 것을 우려하면서도 내 말에 반대하지는 않았다. 참 착한 신도들이다.

문제는 배추였다. 신도들은 해남 배추가 가장 좋다고 했다. 다른 지역에서 나는 건 겨울을 지나면 물리는데 비해 해남 배추는 해를 넘겨도 여전히 아삭거린다고 하였다. 해남이라면 내가 5년이나 살았던 곳이 아닌가. 거기엔 아는 사람이 많았다. 특히 스님 생활을 하다가 환속하여 배추 농사를 짓는 무어 거사가 있었다. 무어 거사에게 전화하여 취지를 설명했더니 좋은 일이라며 적극 돕겠다고 약속했다.

내가 해남에서 배추를 실어오겠다고 했더니 신도들은 자신들도 사겠다고 나섰다. 그러다가 결국 3천 포기를 실어와서 일부를 팔고 나머지로 김장을 담가 이웃돕기를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1천 포기를 실어오나 3천 포기를 실어오나 운송비는 별 차이가 없으니까.

2008년 12월 3일, 배추를 실은 트럭이 큰길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는 전화를 받고 큰길로 나갔을 때 나도 모르게 탄성이 터져나왔다. 배추 3천 1백 포기는 실로 엄청난 양이었다. 그 큰 트럭에 가득 실린 게 다 배추였다.

우여곡절 끝에 절 마당으로 옮겨진 배추는, 이름 그대로 산(山) 만했다. 우리절 김장 불사는 이렇게 시작됐다.



한복 스님(재)선학원 대구 보성선원 주지

찬덕불교 아름다운 등

찬덕불교가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오색 로잔등

펜트그래프전구

주름 등

왕정기전등

칼라로카시등

영가 등

구판영정등

※ 사찰명 인쇄시 제작기간이 소요되오니 예약 주문 바랍니다 ※

전선(케이블)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계는 범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흥은사

신상품 찬덕 LED 전구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립니다

종류	일반전구	찬덕 LED 전구
소비전력	10W	2W
효율	10 lm/w	50 lm/w
연간전기로	2146원	429원
수명보장		30,000 시간

운주사 LED 인등

보급형 위패

(대)

(소)

(인등용 LED전구)

1년 365일,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98원/1kwh

찬덕불교 www.chanduk.com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영2리 261-6 / 전 화 : 031)792-6288, 794-4055 / 팩스:031)794-6288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